

축구대표팀 감독... 마쉬냐 귀네슈냐

축구협 후보 2~3명으로 압축 마쉬는 황희찬과 '사제' 인연 귀네슈는 FC서울 감독 출신

한국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에 외국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대한축구협회가 최종 후보군을 2~3명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돌입한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전력강화위) 회의를 열고 새 감독 후보군을 압축했다.

이달 초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은 11명의 지도자(한국인 4명, 외국인 7명)를 후보 선상에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 위원장은 비대면·대면으로 후보들과 접촉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력강화위는 정 위원장이 진행한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2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 이들 모두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차기 감독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은 제시 마쉬 전 리즈 유나이티드(잉글랜드) 감독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 마쉬 감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오스트리아 리그 잘츠부르크를 이끌며 두 차례 리그 우승을 지휘하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잘츠부르크에서 한국 대표팀의 공격수인 황희찬(울버햄프턴)과 함께한 인



세놀 귀네슈(왼쪽) 감독이 그라운드 선수들에게 과감한 플레이를 할 것을 독려했고 있다. 제시 마쉬 감독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즈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 선수들의 플레이를 관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도 있다. 다만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없는 게 흠으로 지적된다. 과거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을 이끌었던 터키의 세놀 귀네슈 감독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귀네슈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FC서울을 이끌며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았다. 너무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축구 인생 3년을 한국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다. 귀네슈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튀르키예를 3위로 이끌었고, FC서울 감독을 맡아 한국 축구와 인연이 각별하다. 유로 2020에서 튀르키예 대표팀을 맡았으며 최근까지 명문 팀 베식타슈를 지휘했다.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지만 70세가 넘는 고령에 지도자 경력의 정점을 지났다든 비판도 있다. 전력강화위는 이달 중순까지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의 다음 A매치는 6월 열리는 월드컵 예선이다.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6일)와 중국과의 홈 경기(11일)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펼친 끝에 4강에서 탈락했고 당시 선수들 사이 내분이 있었던 점이 드러난 끝에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이 2월 16일 경질됐다. 본업이던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직에 더해 3월 A매치 기간 A대표팀 임시 사령탑까지 맡으며 주목 받은 황선홍 감독이 한 동안 차기 A대표팀 감독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황 감독은 U-23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이후 전력강화위는 외국인 선임으로 방향을 잡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박병헌기자 bhpark@skyedaily.com

연도 있다. 다만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없는 게 흠으로 지적된다. 과거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을 이끌었던 터키의 세놀 귀네슈 감독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귀네슈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FC서울을 이끌며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았다. 너무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축구 인생 3년을 한국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다. 귀네슈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튀르키예를 3위로 이끌었고, FC서울 감독을 맡아 한국 축구와 인연이 각별하다. 유로 2020에서 튀르키예 대표팀을 맡았으며 최근까지 명문 팀 베식타슈를 지휘했다.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지만 70세가 넘는 고령에 지도자 경력의 정점을 지났다든 비판도 있다. 전력강화위는 이달 중순까지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의 다음 A매치는 6월 열리는 월드컵 예선이다.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6일)와 중국과의 홈 경기(11일)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펼친 끝에 4강에서 탈락했고 당시 선수들 사이 내분이 있었던 점이 드러난 끝에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이 2월 16일 경질됐다. 본업이던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직에 더해 3월 A매치 기간 A대표팀 임시 사령탑까지 맡으며 주목 받은 황선홍 감독이 한 동안 차기 A대표팀 감독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황 감독은 U-23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이후 전력강화위는 외국인 선임으로 방향을 잡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박병헌기자 bhpark@skyedaily.com

연도 있다. 다만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없는 게 흠으로 지적된다. 과거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을 이끌었던 터키의 세놀 귀네슈 감독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귀네슈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FC서울을 이끌며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았다. 너무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축구 인생 3년을 한국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다. 귀네슈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튀르키예를 3위로 이끌었고, FC서울 감독을 맡아 한국 축구와 인연이 각별하다. 유로 2020에서 튀르키예 대표팀을 맡았으며 최근까지 명문 팀 베식타슈를 지휘했다.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지만 70세가 넘는 고령에 지도자 경력의 정점을 지났다든 비판도 있다. 전력강화위는 이달 중순까지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의 다음 A매치는 6월 열리는 월드컵 예선이다.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6일)와 중국과의 홈 경기(11일)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펼친 끝에 4강에서 탈락했고 당시 선수들 사이 내분이 있었던 점이 드러난 끝에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이 2월 16일 경질됐다. 본업이던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직에 더해 3월 A매치 기간 A대표팀 임시 사령탑까지 맡으며 주목 받은 황선홍 감독이 한 동안 차기 A대표팀 감독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황 감독은 U-23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이후 전력강화위는 외국인 선임으로 방향을 잡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박병헌기자 bhpark@skyedaily.com

연도 있다. 다만 국가대표팀을 이끈 경험이 없는 게 흠으로 지적된다. 과거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을 이끌었던 터키의 세놀 귀네슈 감독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귀네슈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FC서울을 이끌며 한국에서 3년 동안 살았다. 너무 즐거운 추억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축구 인생 3년을 한국과 함께 마무리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밝혔다. 귀네슈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튀르키예를 3위로 이끌었고, FC서울 감독을 맡아 한국 축구와 인연이 각별하다. 유로 2020에서 튀르키예 대표팀을 맡았으며 최근까지 명문 팀 베식타슈를 지휘했다.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고 있지만 70세가 넘는 고령에 지도자 경력의 정점을 지났다든 비판도 있다. 전력강화위는 이달 중순까지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의 다음 A매치는 6월 열리는 월드컵 예선이다.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6일)와 중국과의 홈 경기(11일)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펼친 끝에 4강에서 탈락했고 당시 선수들 사이 내분이 있었던 점이 드러난 끝에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이 2월 16일 경질됐다. 본업이던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직에 더해 3월 A매치 기간 A대표팀 임시 사령탑까지 맡으며 주목 받은 황선홍 감독이 한 동안 차기 A대표팀 감독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황 감독은 U-23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이후 전력강화위는 외국인 선임으로 방향을 잡고 작업을 진행해왔다. 박병헌기자 bhpark@skyedaily.com

“너무 탐욕스럽다...” 승점 3점 날린 김민재 세 번 직격탄 뒀던 감독

독일 프로축구의 '명가' 바이에른 뮌헨의 토마스 투헬 감독이 승점 3을 날려버린 '철가둥' 김민재를 직격했다. 뮌헨은 1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23-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골로 역전승을 거두는 듯했으나 후반 38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줘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김민재가 페널티킥을 헌납했다. 후반 37분 비니시우스의 패스를 받으려던 호드리구를 잡아채며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명백한 파울을 범하고 말았다. 애초 호드리구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앞서 전반 24분 비니시우스에게 선제 실점하는 상황에서도 김민재의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왼쪽)가 1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와의 2023-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페널티킥을 선언하자 주심에게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왼쪽)가 1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와의 2023-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페널티킥을 선언하자 주심에게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김민재의 실수가 없었다면 뮌헨은 12년 만에 UCL 무대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승리하며 '천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다. 평소 솔직한 화법의 투헬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김민재의 잘못을 매섭게 지적했다. 독일 매체 슈포르트1에 따르면 투헬 감독은 "김민재는 너무 탐욕스럽다. 공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없다. 너무 쉽게만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다. 페널티킥을 내준 상황에 대해서도 투헬 감독은 "계속 안 쪽에 잘 있다가 비니시우스가 패스할 때 쓸데없이 공간을 내주는 실수를 했다. 그런 상황에선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헌기자 bhpark@skyedaily.com



한화 이글스의 투수 류현진(왼쪽)이 KBO리그 통산 100승을 달성한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식당에서 100승 달성에 큰 공을 세운 팀 동료 노시환에게 소고기를 먹여주고 있다. 99코퍼레이션 소셜미디어 캡처

“덕분에 100승”... 노시환에 한우 한 톨 쏜 류현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돌아온 한화 이글스의 선발투수 류현진(37)이 '소고기를 사달라'는 특급 도우미 노시환의 요청에 곧바로 화답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SSG 랜더스전에서 KBO리그 개인 통산 100승을 달성한 뒤 팀 후배 노시환, 장민재 등과 대전 시내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특별한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 소속사인 99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류현진은 한우를 구워서 직접 노시환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류현진은 이날 100승 달성에 노시환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노시환은 타석에서 만루홈런 포함 2타수 1안타 2볼넷 4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고, 수비에서도 강습 땅볼 타구를 여러 차례 호수비로 막아냈다. 류현진은 노시환의 도움 속에 6이닝 7피안타 2볼넷 1탈삼진 2실점(1자책점)으로 SSG 타선을 틀어막아 3수 끝에 KBO리그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다. 노시환이 류현진을 도운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류현진이 개인 통산 99승을 올린 4월 11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1회 선취 타점을 올리는 등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안정적인 수비로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노시환은 경기를 마친 뒤 '대선배인 류현진에게 매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류현진이 소고기를 한번 사셔야겠다"며 깔깔 웃었다. 류현진은 노시환의 요청에 곧바로 화답했다. 류현진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노시환의 발언을 전해 듣고 "노시환의 실력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농담한 뒤 곧바로 고깃집으로 향해 직접 한우를 구워줬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돌아온 한화 이글스의 선발투수 류현진(37)이 '소고기를 사달라'는 특급 도우미 노시환의 요청에 곧바로 화답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SSG 랜더스전에서 KBO리그 개인 통산 100승을 달성한 뒤 팀 후배 노시환, 장민재 등과 대전 시내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특별한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 소속사인 99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류현진은 한우를 구워서 직접 노시환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류현진은 이날 100승 달성에 노시환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노시환은 타석에서 만루홈런 포함 2타수 1안타 2볼넷 4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고, 수비에서도 강습 땅볼 타구를 여러 차례 호수비로 막아냈다. 류현진은 노시환의 도움 속에 6이닝 7피안타 2볼넷 1탈삼진 2실점(1자책점)으로 SSG 타선을 틀어막아 3수 끝에 KBO리그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다. 노시환이 류현진을 도운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류현진이 개인 통산 99승을 올린 4월 11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1회 선취 타점을 올리는 등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안정적인 수비로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노시환은 경기를 마친 뒤 '대선배인 류현진에게 매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류현진이 소고기를 한번 사셔야겠다"며 깔깔 웃었다. 류현진은 노시환의 요청에 곧바로 화답했다. 류현진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노시환의 발언을 전해 듣고 "노시환의 실력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농담한 뒤 곧바로 고깃집으로 향해 직접 한우를 구워줬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돌아온 한화 이글스의 선발투수 류현진(37)이 '소고기를 사달라'는 특급 도우미 노시환의 요청에 곧바로 화답했다. 류현진은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SSG 랜더스전에서 KBO리그 개인 통산 100승을 달성한 뒤 팀 후배 노시환, 장민재 등과 대전 시내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특별한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 소속사인 99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류현진은 한우를 구워서 직접 노시환의 입에 넣어주기도 했다. 류현진은 이날 100승 달성에 노시환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노시환은 타석에서 만루홈런 포함 2타수 1안타 2볼넷 4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고, 수비에서도 강습 땅볼 타구를 여러 차례 호수비로 막아냈다. 류현진은 노시환의 도움 속에 6이닝 7피안타 2볼넷 1탈삼진 2실점(1자책점)으로 SSG 타선을 틀어막아 3수 끝에 KBO리그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다. 노시환이 류현진을 도운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류현진이 개인 통산 99승을 올린 4월 11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1회 선취 타점을 올리는 등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고, 안정적인 수비로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노시환은 경기를 마친 뒤 '대선배인 류현진에게 매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류현진이 소고기를 한번 사셔야겠다"며 깔깔 웃었다. 류현진은 노시환의 요청에 곧바로 화답했다. 류현진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노시환의 발언을 전해 듣고 "노시환의 실력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농담한 뒤 곧바로 고깃집으로 향해 직접 한우를 구워줬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코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